

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증업체  
**심아전력** 기가제 조 설치전문점

▶용도: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썬/레/이 051)743-3376

# 현대불교

'98 지방경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노대행 / 발행인: 김관성 / 편집장: 김관성 / 본사: 서울 서초구 신원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688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08 호

## 현대불교 연중패매인

###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 문중의 파벌조장

석지관, 석성우, 석자명, 석법장... 불교에 갖 입문한 사람들은 스님들 성에 '석(釋)' 씨가 유난히 많은 것을 보고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왜 석씨에 사람들은 그렇게 출가를 많이 했을까 하면서, 그러나 그 '석' 씨가 본성이 아니라 석 기호나 부처님 '석(釋)' 씨인 것을 알게 되면 '아하' 하며, 가장 근원적인 성씨는 물론 부모형제를 비롯 모든 인연을 끊고 오로지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출가한 사람들이 스님됨을 실감한다.

이렇게 성까지도 버린 스님들 사이에서 최근 세속의 문중관념보다도 더 드문 문중파벌이 벌어져 불교계의 고질병과중 하나로 비판받고 있다.

내 문중 내 문중을 따지고 문중에 얽혀 모든 일을 처리하며 선거 등 종단행정에 영향력까지 행사한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보다 문중의 지위를 무조건 따르고 또 그 일이 정법에 그르침이 없는 가를 살피기보다 문중에 얽매어 일을 벌인다. 문중의 힘을 뉘러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어떤 스님이 종단의 소임을 맡았을 때 그 스님이 인가를 얼마나 했고 어떻게 공부했는 가를 따지기 보다 어디 문중인가, 누가 은사인가, 문중이 고루 인제가 됐는가를 따지기 바쁘다. 큰 절에서조차 방장이나 주지를 뽑을 때 00암 파, 00암 파 등의 각축전이 벌어져 어디가 승리했다는 소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들린다. 마치 조선시대 봉당이나 세속의 정치판을 보는 것 같다.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고산스님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계종의 문중 파벌을 걱정했다. "조계종은 문중파벌이 세대는 건재가 있어요. 그런데 좀더 높이 올라가 모두가 일불제자(一佛弟子)라 생각하면 문중파벌이라는 개념은 이미 없어집니다."

수행자는 원래 출로 서야 한다. 협세고 영향력 있는 문중에 속한다고 구도(求道)가 잘되는가, '부소의 불처럼 혼자서' 잘 걷는가.

이경숙 기자(jilee@buddhapia.com)

## 가산연구, '가산불교대사람' 7항목 1·2권 출간

# 세계 불교술어 결집 '대불사'

매년 2~3권씩 15권 완간...세계최대 불교사전 원전 1천종 참고 15만 항목 정리-해설

**29일 출판기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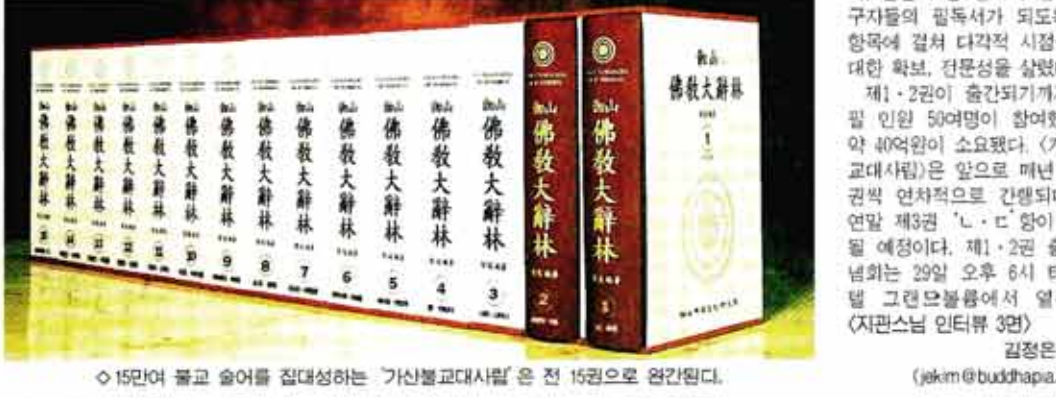
국내·외 15만여 항목의 불교술어를 결집한 세계 최대 불교술어 대백과사전 《가산 불교대사람(伽山佛敎大辭林)》이 출간됐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이 출간한 《가산불교대사람》은 한국불교 관련 항목의 발굴과 인도불교에서 유럽불교학에 이르기까지 불교술어를 세심한 것으로 '1' 항목 제1·2권(1만6천여 항목)이 먼저 나왔다. '일반불교 및 한국불교술어'의 최초 결집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산불교대사람》은 기존의 불교사전보다 한국불교 항목 30%를 새롭게 추출한 대규모 사전(전 15권)이다.

《가산불교대사람》은 한글 현대문으로 서술하면서도 한자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등 불교 원어를 병기함으로써 불교학·종교학·철학·역사·철학·문학 등 한국학 관련 연구자들의 필독서가 되도록 정 함목에 걸쳐 다각적 시점을 최대한 확보, 전문성을 살렸다.

제1·2권이 출간되기까지 집필 인원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약 40여일이 소요됐다. 《가산불교대사람》은 앞으로 매년 2~3 권씩 연차적으로 간행되며 올 연말 제3권 'L·C'항이 발간할 예정이다. 제1·2권 출판기념회는 29일 오후 8시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지관스님 인터뷰 3면>

김정은 기자 (jokim@buddhapia.com)



15만여 불교 술어를 집대성하는 '가산불교대사람'은 전 15권으로 완간된다.



## 김대통령 "종교편향 예방위해 최선" 고산스님 "제2건국 운동" 적극 동참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가운데)과 종회의장 법등스님이 21일 김대중 대통령을 방문 환담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어떠한 종교에 대해 차별도 하지 않으며 똑같이 존중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종교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난 극복과 불교계의 개혁 등에 대한 대가를 위주로 진행된 이날 환담에서 고산스님과 법등스님은 국민정신문화 고양을 위한 정신문화개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불교계 풍악사향들에 대한 실태도 주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연태 기자

## 국내·외 참회문 발표기로

**조계종 138회 총회**

**교육원장-일면스님**  
**호계원장-월서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21일 제138회 임시총회를 열고 종단사태와 관련 세계인을 향한 참회문을 채택했다. 또 공식적인 교육원장과 호계원장도 선출했다.

△참회문 발표 63명이 참석한 21일 총회에서는 종단사태와 관련, 국내불자와 세계 인류를 향한 참회문 채택이 첫 안건으로 다루었다.

△정경비대위 해체 종단 정

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종단사태 당시의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히체했다.

△영축총림방장추대 취소 종회는 21일 세번째 안건에 상정된 '영축총림 방장 추대 취소 및 영축총림 해체 결의의 건'과 관련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였다. 격론을 벌인 총회는 총림해체는 유보하고 방장추대 취소에 대한 의사만 표결에 붙였다. 63명이 찬반 투표를 해 찬성 45표, 반대 13표, 무효 5표 가 나와 영축총림 방장 추대를 취소했다.

△정경비대의 관련 의원에 사퇴촉구 총회는 정경비대위에 가입했던 7명의 중앙종회의원

에 대해 차기총회(3월예정) 이전에 사퇴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하고 사퇴하지 않을시 징계를 결의하기로 했다.

△정경비대의 법적 대응 사무처에 일일 정경비대의의가 종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자적심실 확인 소송등을 낸 것과 관련 총회는 종회사무처가 변호사 선임을 비롯 일체의 법률적 대응을 일임해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원장 등 선출 22일 오전 임정이 유죄된 가운데 오후 2시 60명의 참가로 속개한 중

회 는 교육원장에 일면스님을 표결로 임명동의(찬성 39, 반대 20, 무효 1)했다. 호계원장에 추천된 도형스님의 임명동의는 무결(찬성 16, 반대 40, 무효 2)였다. 월서스님(종회의원)과 정무스님(영일암주지)이 경선을 벌인 호계원장 표결에서는 월서스님이 36표를 얻어 선출됐다. 또 총무원장 후보부 조계종스님에 대한 임명동의도 찬성 45표로 가결됐다. <일면·월서스님 프로필 4면> 임연태 기자 (yitim@buddhapia.com)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http://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il.buddhapia.co.kr>

## 알림

### TV 인터넷 불교정보사업 시작합니다

컴퓨터의 '킵'자도 모르는 '컴'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일이 열렸습니다. 집에서 보는 TV에 인터넷TV 수신기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인터넷 검색에서 PC통신 전자우편까지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리모콘으로 작동하는 '인터넷 안방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불교정보화에 앞장서온 본사는 홈TV인터넷과 함께 '인터넷 TV'에 불교정보를 독점 제공합니다. 또 인터넷 TV를 통해 종단 총무원장 네트워크와 포교에 활성화될 수 있는 정보와 사업을 개시합니다. 인터넷 TV에 가입하시면, 종단이나 사찰의 각종 공문, 방문자료 등을 인터넷TV로 송·수신할 수 있으며 불교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종단과 사찰, 불자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가입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학정보실 (02)732-1520 ·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 伽山智冠 編著 伽山佛敎大辭林 출간을 축하합니다

스님 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7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는 사상 및 문화 전반에 걸쳐 우리 민족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민족사 중흥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사를 주도해 온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불교술어 결집'하는 불교대사전 편찬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라고 여기신 지관스님(본 법인 설립자 겸 원장)께서는 1982년 5월 3일에 발원 후 이 방패하고도 여러 번 판찬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명성 후학양성과 내외전연구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오시고 동국대 총장을 역임 하시는 등 교육공사에 저력을 보이는 품성이 15만여 표제어 추출 및 기초자료 정리 하였고, 1991년 6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는 본격적인 편찬작업에 임한 결과, 금번 드디어 1·2권을 출간하시게 되었습니다.

스님 함으로 여러를 대작공사를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스님 오시고 평안하고 있는 가산가족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최희 사부 대종에게도 오랜만에 뜻깊은 선물입니다. 속히 환관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최희 대종들도 후원과 동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후원회 · 출간준비위원회 총림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KASAN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110-510 서울시 동로구 동숭동 192-10  
우당기념관 2층  
T. (02) 765-9602-3 F. (02) 765-5673

"2500년 불교사에 있어서 세계 최대 표제어를 수록한 불교대백과사전"  
"1700년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일반불교술어 및 한국불교술어의 정치한 1차결집"  
"세계불교학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한국불교학 및 인문학 연구전통의 새로운 지평"



불교대백과사전 "지관 편저, 가산불교대사람"이 본격출간기를 맞이했습니다.

- 규모  
전체 총항목수 15만여 항목(표제어)으로 현재 간행된 국내외 사전 등 최대항목 개수 4×6배한 전 15권  
호간 1권 17만(가·과·한) 항목수 8234  
호간 2권 17만(과·한·국·역) 항목수 7697
- 작업기간  
1차 / 기초작업기간(1차 표제어 발굴 및 정리)1982년~1991년  
2차 / 편수 제작업 추가 항목 발굴 조정·기초연구작업 기간 1991년~1992년  
3차 / 본격 결집 및 출간기간 1994년~현재
- 참여인원  
출판집행 가산 지관스님을 보좌하여 본래의 30여명 작업 (현 인원 30×365)
- 특수특징  
· 1700여 년의 한국 불교 술어의 최초 결집  
· 뛰어난 한국 현대문으로 서술하여 원문을 반드시 병기하여 대외홍보와 전문화의 요구를 아울러 충족하였음  
· 불교 원어를 본기(한자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등)함으로써 佛漢·佛梵·佛巴·佛藏 등 다용도 책임에 나서는 전문사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임  
· 같은 불교 술어일지라도 최대한 한국 불교 한술 문헌에서 그 용례를 살려 설명함  
· 시대순(초기불교-근원불교-부파불교-대승불교-밀교-선불교에 이르는) 사상사적 변천과 지역순(인도-중국-남방불교-티베트-몽골·영·미국·일본·한국) 등 전지역에 이르는 지역적 변이에 따른 중형서술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백과사전적 전문성 이해에도 도움  
· 대장경 및 기간전 원문류 1,000여 종(佛藏大藏經, 轉譯佛藏經, 新譯大藏經, 轉譯)을 집합 분석하여 용례화하였으며, 상세한 표기와 정확한 문헌표기로 용어이해를 위한 연구성과를 최대한 반영함  
· 관행현황과 공행현황을 통하여 관련 술어를 체계적으로 연결·이해하도록 하여 불교술어의 연서적 관심을 통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였음  
· 특히 한 항목에 대한 일자의 견해를 서술하기보다 용례와 참고문헌을 다양하게 밝힘으로써, 현시점에서 보는 세계적인 사전 편수 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확보함을 각 독자께 핵심 공간 및 지평을 확대시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실어주는 것 또한 편수특징으로 삼았음  
· 기존에 출간된 모든 불교 사전(佛經, 스리랑카, 티베트, 영국 등 전지역의 사전)을 비롯적으로 참고하고, 기존의 연구성과를 교정·추가 반영하였음  
· 불교·역사·철학·문학·언어·의학·종교·역사·철학 등 한국학 및 관련 연구자들의 필독서가 되도록 정 함목에 걸쳐 종합적으로 다각적 시점을 최대한 확보 서술하였음
- 예언  
1982년~현재 40여만 소수
- 양우 권안 및 권역개역  
연차로 간행하되 현재 연 2~3권씩 예정대로 여건에 따라 완료가 조정됨!